
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

2018. 7. 18

관계부처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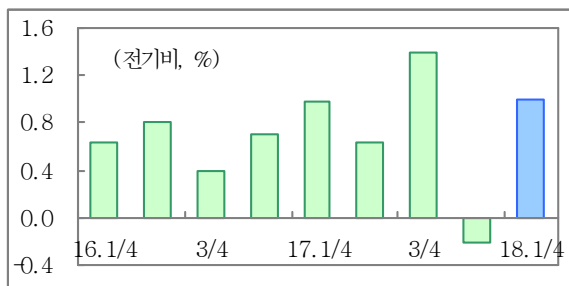
순서

I. 상반기 경제운용평가	1
II.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	2
III. 정책방향	6
1. 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	7
2. 혁신성장 가속화	9
3.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	10
4. 거시경제 활력 제고	11
[첨부] 경제전망	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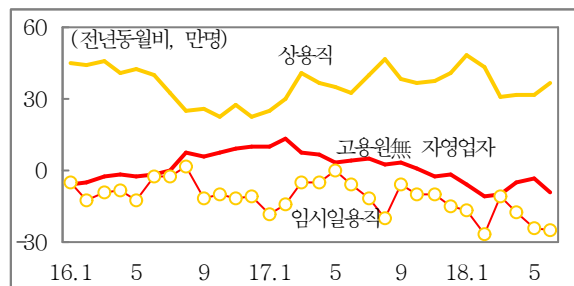
I. 상반기 경제운용평가

-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,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
 -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,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,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 추진
 - * 청년·신혼부부 등 주택금융 지원 강화,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,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
 - 혁신모험펀드·인프라 조성 등 통해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착수
 - 순환출자고리 해소,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질서 확립 추진
 - *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(2월), 대리점 불공정거래 근절대책(5월) 등
 - 성장·부동산·물가·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
 -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, 한미 FTA 재협상 등 대외 리스크 관리 노력
- 다만,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 약화,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 부족
 - 반도체 편중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, 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 개선이 지체되고, 양극화 등 민생 어려움 지속

분기별 GDP 흐름



취업자 증감 추이



Ⅱ.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

1. 경 기

①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, 지표와 체감간 괴리 확대

-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,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,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

* 수출(1~6월)/설비투자(1~5월) 증가율(%) : (전체)6.6/4.8 (반도체 제외시)0.0/△1.4

- 소비는 외형상 증가에도 불구하고, 내수밀집 소비는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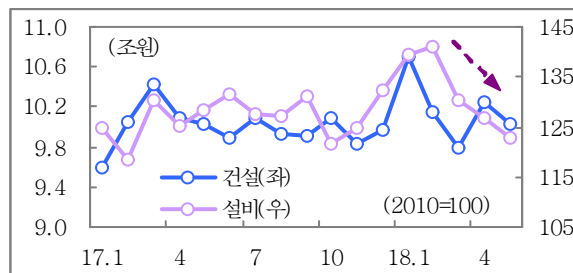
* GDP증가율(전년비, %, '17→'18.1/4) : (민간소비)2.6→3.5 (숙박음식)△2.2→△2.7

* 1/4분기 해외소비 7.3%(국내소비 2.9%), 수입차 28.7%(국내차 △1.0%)

② 향후 대내여건은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하고, 경기 불확실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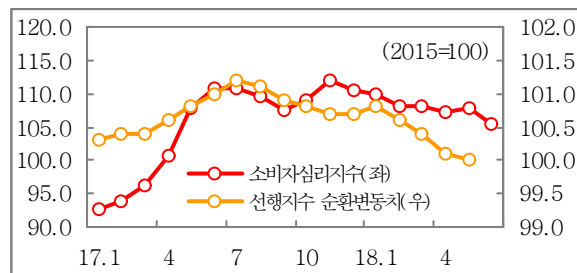
-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·설비 등 투자부진 지속 전망
- 최근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, 소비심리 등은 등락이 있으나 조정받는 모습

설비·건설투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



* 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③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, 하방리스크 확대

- 美中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시 직·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,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요인
-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시 실물·금융 등 영향 우려

2. 일자리 / 소득분배

- ①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, 분배상 어려움도 지속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:('16)23.1 ('17.上)36.0 (下)27.2 ('18.1/4)18.3 (4)12.3 (5)7.2 (6) 10.6

* 5분위배율(1/4분기 기준):('16)5.02 ('17)5.35 ('18)5.95('03년 이래 최고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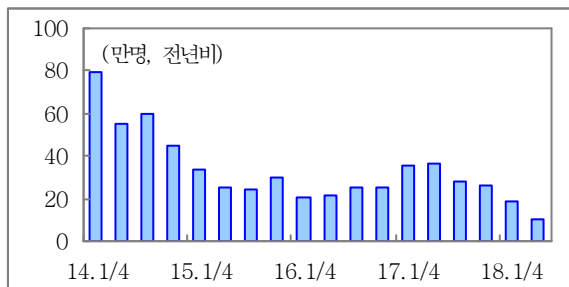
- ② 향후에도 당분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

- 주력산업 부진,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며 고용 증가세 제약 전망

* 생산가능인구(만명, 전년비): ('15)18.7 ('16)13.4 ('17)2.1 ('18.上)△6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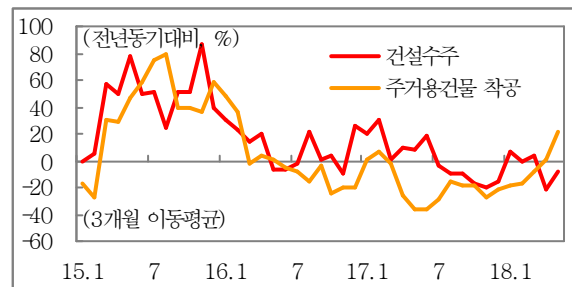
- 청년일자리 대책 및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상방요인이나, 건설경기 조정 등은 하방요인

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건설수주 및 주거용건물 착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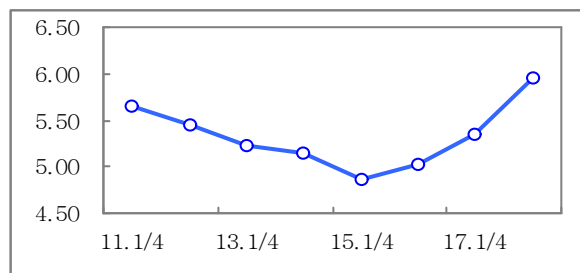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

- ③ 분배는 구조적 제약요인 등 감안시 단기간내 개선에 한계 우려

- 고령화, 온라인화·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·일용직 감소, 영세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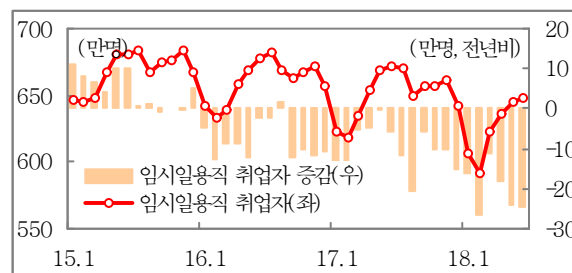
* 65세이상 비중 전망(% , 장래인구추계):('18)14.3 ('20)15.6 ('25)20.0 ('30)24.5

5분위 배율 추이(1분기)



* 자료: 통계청

임시일용직 취업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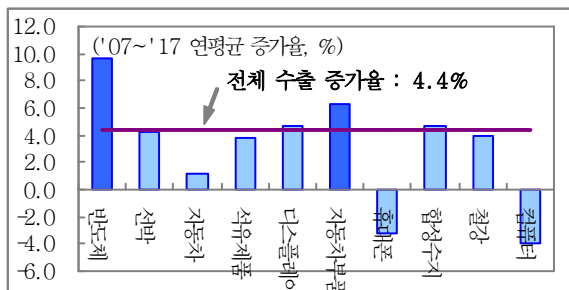
3. 구조적 여건

① 주력산업 부진 지속,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

- 반도체 등을 제외한 차·조선 등 대부분 주력업종의 대내외 수요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경제·산업 구조 취약성 심화
- 규제혁신이 지연되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고, 최근 신규창업이 증가하나 고부가가치 분야 창업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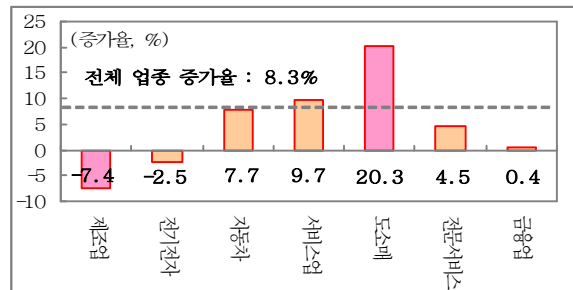
* 규제환경지수(WIPO, '18) : (싱가폴)98.6<1위> (미국)93.0 (일본)90.6 (한국)72.2<45위>

최근 10년간 주력업종 수출 추이



* 자료 : 관세청

업종별 신규창업 증감(1~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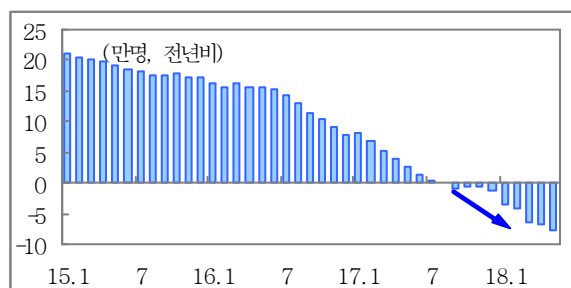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

②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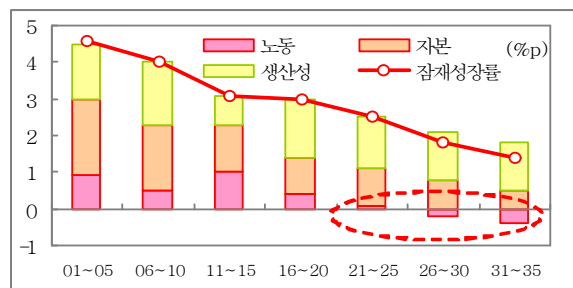
-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노동공급제약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 확대
- 향후 노동의 성장기여가 어려운 가운데,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수

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잠재성장률 추이



* 자료 : KDI

4. 경제전망

- (성장) '18년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**2.9% 수준 성장** 전망
 -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, 미중 무역갈등 심화,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**수출·소비 회복세 다소 둔화** 전망
- (고용) '18년은 인구감소 본격화·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**취업자 증가폭**은 전년보다 감소한 **18만명 수준** 전망
 - * 주력산업 구조조정,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 ('17.上: 36→ '18.상: 14만명)되며,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 하향
 - 고용률은 전년(66.6%)보다 다소 개선된 **66.9%** 예상
- (물가) '18년은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,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**1.6% 상승**
- (경상수지) '18년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'17년 대비 감소한 **640억불** 전망

	'17년	'18년	'19년
■ 경제성장률(%)	<u>3.1</u>	<u>2.9</u>	<u>2.8</u>
■ 취업자증감(만명)	<u>32</u>	<u>18</u>	<u>23</u>
■ 소비자물가(%)	<u>1.9</u>	<u>1.6</u>	<u>1.8</u>
■ 경상수지(억불)	<u>785</u>	<u>640</u>	<u>630</u>

◇ 우리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,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
 ⇒ 정책적 노력을 통해 3%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

Ⅲ. 정책방향

- ◇ 지난 1년간 **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**에 착수하여 **초석을 마련**하였으나, **체감·효과** 측면에서 **미흡**
 - 앞으로는 **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** 착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운용
- ◇ **소득·고용·삶의 질**에 걸쳐 “**성장의 포용성**”이 높아질 수 있도록 **소득주도성장**(총수요), **혁신성장**(총공급), **공정경제** 등 과제를 “**속도**”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“**체감**”할 수 있는 “**성과**” 창출에 주력
- ❶ **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,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**
 - 고용창출력과 인구·산업구조 등 추세적·구조적 변화를 재점검하여 **업종별·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·추진**
 - 주거·교통·안전·환경 등 **삶의 질 개선** 위한 **기반투자 확대**
- ❷ **핵심규제 획기적 개선 등 경제·사회 전반 혁신 가속화**
 -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촉진을 위해 **하반기중 입지·공유경제 등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** 추진
 -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**사람·지역·산업의 혁신역량 강화**
 - **메가 투자프로젝트**(가칭) 선정, **예산·세제·금융** 집중 투자
- ❸ **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개혁입법 추진,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 정착**을 위한 대책 꾸준히 추진
- ❹ **승용차 개소세 인하, 약 4조원 재정보강** 등 거시경제 활력제고
 - **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**
 - 글로벌 통상마찰, 미 금리인상 등 **리스크** 요인 **선제적 관리**
- ◇ **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**으로 정책효과 지속 유도

[1] 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

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,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속 추진

○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

- * 연령기준 폐지, 재산 2억원 미만(現 1.4억원), 중위소득 65% 이하(現 50%)까지 지원
- * 최대지급액(만원) : (단독가구) 85→150, (홀벌이) 200→260, (맞벌이) 250→300

○ 실업급여 지급액·지급기간을 확대하고, 예술인·특수고용직(보험설계사 등)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 확대

- *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(지급수준: 평균임금 50→60%, 최대 수급기간: 8→9개월)

▪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하고,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

○ 기초·장애인연금 25만원(9월),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10월)

- '19년에는 소득하위 20%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, 기초생보(생계급여)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완화

○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(0%대 수수료)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, 재창업·전직 지원 등 안전망 강화

- 소상공인 등에 대한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」 마련(연내)
-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(現 5년)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, 철거·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

②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, 업종·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

○ 인구·산업구조 등 추세적·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,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

- * 투자유치 제도 개편(7월), 의료기기 산업 규제개선 방안(7월) 등

○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·확산 추진

○ 청년일자리 추경사업 신속 집행, 신중년 적합일자리 지속 확대

- 공공·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('22년까지 81만명)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중물 역할 강화

③ 주거·교통·안전·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 확대

-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,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

*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(하반기),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 선정(8월)

-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,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, 노후 주거·교통시설 교체·보수, 안전·환경개선 설비 보강

*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 마련 예정('18년 하반기)
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, 교통·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

* 뇌·혈관 MRI 급여화(9월),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(12월)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
*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마련(8월), 알뜰폰 활성화 추진(하반기) 등

- 아이돌봄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지속 확충

* 돌보미 2.3→4.3만명(~'22),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등 비중 40%까지 확충(~'22)

④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,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·지원 병행

*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 마련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'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

* 지원대상·요건·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19년 예산안에 반영

-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·업종 집중 지원

- 비정규직 차별해소,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 통해 임금격차 완화

-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

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

[2] 혁신성장 가속화

① 8월중 시장·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·발표, 하반기 중 입지·공유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선 추진

-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 집중
- 핵심규제별 개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(필요시 대통령 주재), 연내성과 창출 달성
-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·규제혁신 관련 입법 연내 마무리

②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·지원, 창업 활성화

- 인·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실행까지 집중지원, 일자리 창출로 연결
 - 관계부처 합동 투자 캐러반 등을 통해 현장애로 즉시 해소
- 지역 고용창출, 신산업 육성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(7월)
- 창업 추정예산(0.7조원) 신속집행, 기술·생활혁신 창업지원으로 신설법인 12만개 달성, M&A·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 검토

③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유망분야 지원, 제조업·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, 메가 투자프로젝트(가칭) 선정·지원 추진

- 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인프라, 공공수요 확대 등 집중지원, 블록체인 선도를 위한 R&D 확대, 공공분야 시범사업 추진
- 자동차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 지속 추진
- 공유경제·관광·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

* 공유경제 활성화방안(8월),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(8월) 등

○ **메가 투자프로젝트** 선정(가칭), 예산·세제·금융 등 **집중 투자**

* 혁신성장 동력, 성장잠재력,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선별, 정부·기업·연구기관으로 작업반 구성,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선정

④ **4차 산업혁명,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** 등을 감안하여
미래가 요구하는 **인적역량 강화 시스템** 마련

○ **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, 선취업-후학습** 방안 마련(7월)

*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및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등

* 취업선도형 직업계고 시범운영,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등

⑤ **중앙·지방정부 협력체계**를 강화, **지역·생활밀착형 정책** 추진

○ **창경센터·테크노파크·지역대학** 등과 **지역혁신체계** 구축

○ 지자체가 단기·중장기 **지역경제 활성화 계획**을 수립하고
중앙정부는 **재정지출, 세제감면** 등 **매칭지원**

* 지역 밀착형 예술·체육·문화시설 확충,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등

[3]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

① **다중대표소송제 도입, 전자투표제 의무화** 등 개혁입법 **가속화**

○ 대기업 집단의 **경제력 집중, 일감몰아주기** **규율**(공정거래법)

○ 대기업 금융사를 통한 **비금융계열사 부실지원** **방지** 추진

*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('18.7~)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마련 추진

② **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** 등 **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**

* (하도급)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, (대규모 유통) TV 홈쇼핑 점검,
(가맹) 구입강제 등 핵심 애로점검, (대리점)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 점검

○ 기술선도업자의 **지재권 남용**, 대기업의 **기술탈취 행위 차단**

③ 서민·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

-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, 채무조정 조기지원,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
 - * 4대 서민금융상품(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퀴드림론)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-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, 불완전판매 방지, 분쟁조정 등

④ 대-중소기업, 중소기업-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 촉진

- 대-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
 - * 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 방안 마련(8월) → 시범 도입 및 법제화('18.下)
-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 성과공유제 확산
 - *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및 세제혜택 등 우대지원 방안 마련('18.9월)
- 상생협력, 일자리 창출, 사회적가치 실현 등 기업책임경영 확산

[4] 거시경제 활력 제고

① 기금변경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 제고

-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(5→3.5%),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
 - * 조기폐차 지원('18년 11.6→'19년 15만대),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% 감면
- 기금 변경, 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
 - 주거·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·취약계층 지원 확대, 안전설비·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등
- 목적예비비 활용한 구조조정 업종·지역 지원 확대
 - * 선박건조 등 안정적 수요 확보, 부품·기자재 R&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·수출 지원 등

② **재정**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**완화적 기조 유지**

○ **'19년 재정지출**을 당초 계획보다 **확장적으로 운용**

* 2017~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 : 5.7%

○ **일자리 창출, 혁신성장 지원, 사회안전망 확충** 등에 중점

○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**재정건전성 관리**를 위한 틀 마련

*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 집행실적·사업성과 점검 등 원점 재검토

③ **통상분쟁, 미 금리인상** 등에 따른 **금융불안 가능성** 등에 대응

○ **미·중 관세부과,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**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

▪ 수출시장 다변화 등 **새로운 수출시장 개척, R&D 강화** 등을 통해 **수출산업 경쟁력**을 제고

▪ **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가입여부 조속 결정**

○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**신흥국 금융불안**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**모니터링** 강화, 필요시 **시장안정조치** 실시

▪ **국내금리 동반 상승**에 대비, **서민·영세자영업자 지원** 강화

* 중금리(사잇돌)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(9월),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(12월) 등

⇒ **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(7.18일)**을 시작으로
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·추진

2018~2019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비, %)

	'17년 실적	'18년 ^e		'19년 ^e 연간
		1/4	연간	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 ¹⁾	3.7	-	3.9	3.9
Dubai 유가(\$/bbl)	53	64	70	67
실질 GDP	3.1	2.8	2.9	2.8
민간소비	2.6	3.5	2.7	2.7
설비투자	14.6	7.3	1.5	2.0
건설투자	7.6	1.8	△0.1	△2.0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0	3.5	3.0	3.0
경상 GDP	5.4	3.5	4.0	4.4
취업자 증감(만명)	31.6	18.3	18	23
고용률(15~64세, %)	66.6	66.0	66.9	67.2
소비자물가	1.9	1.3	1.6	1.8
경상수지(억달러)	785	118	640	630
상품수지(억달러)	1,199	239	1,090	1,060
수출(통관,%)	15.8	10.1	5.3	2.5
수입(통관,%)	17.8	13.6	11.2	2.9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△414	△121	△450	△430

1) IMF World Economic Outlook('18.7월)